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국가형성과정에서 정보의 역할 연구

석재왕*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정보활동이 정체성 즉 국민들의 자의식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국가건설 과정에서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다. 19세기말 유대인들은 역사의 희생자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박해는 정치적, 신앙적 공동체인 독립국가 이스라엘 건설을 추동하는 요인이 되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보요원들은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시키는 한편, 아랍인들과 투쟁하면서 국가건설에 매진했다. 다시 말해서, 정보활동은 유대인들의 국가건설을 위한 민족주의인 시오니즘을 구현하는 수단인 셈이다. 1948년 독립이후에도 정보기관은 아랍 국가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 등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UN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승인을 획득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로부터 ‘사라져야 할 국가’로 인식되면서 국가정체성이 부인되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와 이집트와 정상회담을 통해 비로소 국가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를 성서상의 ‘약속의 땅’의 회복이라는 예언의 성취로 이해하며 승리자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정보활동은 국가의 독립과 건설, 그리고 국민들의 자의식의 형성과 변화를 유발한 기제였다.

주제어 : 정체성, 범주화, 시오니즘, 모사드, 중동전쟁, 정상회담

* 건국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 연구위원

목 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 정체성의 구성 동학 III. 이스라엘의 민족국가 건설과 정보활동 IV. 국가성 획득과 정체성의 변화 V. 결 론 |
|--|

I. 서 론

본 논문은 이스라엘에서 정보활동은 정책결정의 투입요소 또는 외교정책의 일부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 영토, 인구 구성 등 국가건설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제로 작용해왔다는 사실을 분석하는데 있다. 구약성서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에서 정보활동은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가지면서 국가안보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유대인들의 정보활동은 AD 70년경 로마제국의 예루살렘 정복 이후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을 영위하다가 19세기 후반 이래 국가건설을 위한 정치적 시오니즘의 구현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모사드의 전신인 레알리아 (Mossad le Aliyah Bet) 명칭이 의미하듯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유럽의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수송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테러, 폭파, 요인납치, 암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오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이들 정보요원들의 노력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이 시기 정보기관의 구조와 활동은 훗날 정보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정보활동은 가용자원이 절대 열세였던 약소민족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promised land)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셈이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스라엘 정보요원들은 전세계 디아스포라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들을 연합군측에 제공함으로써 승리에 일조하였다. 1948년 해방이후 독립

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보기관의 역할은 지속되었다. 미국, 소련 등을 설득하여 UN으로부터 국가승인을 받아 이스라엘 국가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이스라엘은 우여곡절 끝에 국제사회로부터 국가성을 인정 받았으나 아랍국가들로부터 그 국가성이 부인되었으므로 4차례에 걸친 전쟁과 평화협상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보활동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에 따라 국가의 생존여부가 결정되고 국민들의 자기 인식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전쟁의 승리후에는 영토확장과 국민안전의 보장, 그리고 아랍국가들로부터 국가승인을 획득하고 승리자로서, 자의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패배 이후에는 절체 절명의 안보위협과 함께, 희생자로서의 자기 이미지가 재연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에서의 정보활동은 시오니즘을 바탕으로 국가건설 초기단계에서부터 영토의 회복과 민족 재결합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일상 속으로 까지 침투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아랍국가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유대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규정력으로 작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정체성의 개념과 구성 과정을 살펴본다. 여기서 정체성은 ‘집합적 자의식’으로 정의되며 외부 행위자와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된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보활동을 다룬다. 유대국가 건설의 이념적 배경이 되는 시오니즘과 정보활동의 연계를 분석하고 해방전후 UN 및 국제사회로부터 국가성(Statehood)을 인정받기 위한 정보기관의 노력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아랍국가들과의 전쟁을 통한 주권 국가 이스라엘의 승인과 정체성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마지막 5장 결론에서는 요약과 함께 시사점이 제시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 정체성의 구성 동학

1. 정체성 개념

흔히 정체성(identity)은 “나는 누구인가?” 또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정의된다. 정체성은 완결체라기 보다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상대방이 있는 게임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몇몇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대상에 대한 성찰적 인식”(Giddens, 1991: 52), 또는 “중요한 문화적 특징 또는 문화적 특징들의 집합이라는 기초위에서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Castells, 1997:6), “자신에 대한 이해 방식(Hall, 1999:73)”, “타자의 관점을 수용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의미들의 집합”(Wendt, 1994:385), “다른 개인이나 집합체들과 구별되는 방식들”(Jenkins, 1996:4)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정체성은 타자와 비교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 인간 사고의 산물이거나 정신작용의 결과라는 점, 끊임없이 변화해간다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을 토대로 볼 때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기이해 또는 인식’으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형성 과정

어떤 인사가 스스로 교수라고 생각 할지라도 학생들이 이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의 정체성은 교수-학생간 관계에서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예에서 보듯이 정체성에는 자신(the Self)과 타자(the Other)에 의해 유지되는, 두 가지 종류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정체성은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구조에 의해 구성된다(Wendt, 1999: 22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체성의 형성과정은 두 가지 국면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위자가 어떤 대상(특히 국가, 국가적 상징물)을 자아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해 의미들을 획득하는 내적 동일화과정과 이를 통해 획득된 의미들을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인정받는 국면인 대외 승인이라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1) 범주 규정과 동일시¹⁾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이 객관적인 특성과 요소들을 공유할 경우 범주가 형성되고, 호혜적인 상호 인식과 집합체에 대한 소속감이 공유되면 집단이 된다. 범주는 외부자의 시각에 의해서만 유의미한 사실로 인식되고 규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수 개인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 기준으로 사람들을 하나의 범주

1)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범주규정과 내적 동일시 과정에 대한 개념과 설명은 “민족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정호영, 2001)에 의존하였다.

로 묶을 것인가는 애초부터 범주를 규정하는 외부자 즉 범주 규정자의 정치적 의도와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범주 규정에는 권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Jenkins, 1996: 86). 범주는 환경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집합체들과 경쟁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원의 획득과 이용에 있어서의 제약과 가능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자원의 유한성이라는 조건 속에서 자원 확보를 위한 집합체들 간의 경쟁은 범주의 결정과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범주가 형성되면 현실적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화된 행정체계를 필요로 한다. 이 제도화된 행정체계는 외적으로는 다른 집합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범주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내적으로는 성원들에 대한 범주 규정자의 의지를 실현시켜 주는 정치적 수단이 된다. 범주의 규정과 유지에는 권력 자체 뿐 아니라 권력을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계라는 제도화된 권력 수단이 필요하다. 행정체계는 작동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성원들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개입이 지속되면 각 성원들의 삶은 점차 유사한 유형으로 구조되어 나간다.

범주의 규정과 유지는 범주 규정자의 정치적 프로젝트이다. 범주 규정자가 갖는 권력과 제도적 권력 수단 없이는 범주의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주가 집합체로서 지속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Weber적 의미에서 권력의 권위로의 전환, 즉 권력의 정당화가 필수적이다. 내적 동일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동일시(identification)라는 용어가 말해 주듯이 정체성은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며 다른 사람 혹은 사물과 결부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Jenkins, 1996:4). 개인들의 내면적 요구가 자연스럽게 동일시를 통한 공동체의 구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구심적이나 리더십 없이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는 생각은 유토피아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동일화 과정에서 주체는 누구이며 대상은 누구인가?

주체는 집합체 개별 성원들이며 대상은 집합체 내의 다른 성원들과 전체로서의 집합체이다. 개별 성원들은 다른 성원들과 전체로서의 집합체를 모두 동일시 대상으로 삼으며, 실제로 이들에 대한 동일시가 이루어지면 동료 성원들과 집합체가 자아의 연장으로 간주되고 성원들간의 호혜적 인식과 집합체에 대한 소속의식의 힘이 집합적 정체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집단에서 서로를 직접적으로 경험해본 적이 없는 성원들 간에도 마치 서로 오랜 경험을 공유한 것과 같은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가능하다. 전체로서의 집합체에 대한 경험과 성원들 간의 상호적 경험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범주가 집단으로 전환되면 범주 규정자는 '성격

전환된 범주 규정자가 된다. 즉 자기 집합체를 정당하게 대리하는 집단 대표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모든 개인들은 집단 대표자들 자신의 확대된 자아로 간주하고 구성원들이 집단 대표자를 경험하면 성원들이 모두 경험한 것에 해당된다. 집단 구성원들간의 상호적 경험은 집단대표자에 대한 경험을 통해 매개적 경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집단대표자는 정당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원들과 자기 자신을 일체화시키는 집합적 동일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집단 대표자가 제시한 이미지와 상징들을 구성원들이 경험함으로써 이들은 집단 대표자를 간접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제시된 이미지나 상징(symbol)들이 구성원들의 행위와 태도를 규정할 수 있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동일시과정이 진행된다.

집단은 일정 수준의 제도화에 도달하면 예외 없이 깃발, 제복, 로고, 시나 소설, 노래, 연극과 영화, 역사적 영웅이나 전적지, 다양한 유물과 사적들과 같은 수많은 상징을 만들어 내면서, 구성원들이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제들을 가지고 있다. 동일시 과정에서는 집단대표자의 자원의 평등한 배분 여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구성원들의 요구를 무제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집합체는 없다. 따라서 물질적 측면에서 집단 내 모든 성원들이 집단 대표자를 유익한 존재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자원을 가능한 한 평등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주권은 영향력과 권력 그리고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한편, 동일시 과정에서 전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전쟁이 발생하면 국가는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적 선택을 하게 된다. 국가는 사회부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하부 권력 구조를 확대시키고 인적, 물적 자원을 추출하는 데 동원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구성원으로부터 강한 충성심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서 국가주권이 비로서 성립하게 되고 사회 내에서 국가가 정치적 권위의 최고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주권은 사회에 대해 상대적인 자유 즉 국가의 자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권력과 권위가 부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가 내부 균열에 직면할 경우에도 국가에 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구성 부분들을 하나의 단위로 작동시키도록 하는 비경쟁적, 통합된(non-rival, unified authority) 권위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Wendt, 1999: 207).

2) 대외적 승인

상호작용을 통해 행위자는 정체성의 속성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정체성의 경우도 타국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그와 같은 조합적(coporate) 정체성은 영토의 경계 외부 행위자(주로 국가, 국제기구)와 연계되어 있다. 집합적 행위자는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회적 행위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 정체성에 대한 타자의 인정 없이 그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정체성은 타국에 의한 주권의 승인으로 나타난다. 주권개념에 대한 구성적 이해가 필요하다. Wendt의 주장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권이란 하나의 제도이며 이것은 상호주관적 이해와 기대를 통해 존재한다. 따라서 타자의 존재 없는 주권이란 없다. 이러한 이해와 기대는 특수한 종류의 국가 즉 주권국가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정체성이 관계적이기 때문이다(정진영, 1996:29). 주권국가는 계속적인 실천의 산물이며 실천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규범들이 한번에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지는 국제관계 또한 그 모습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주권은 국가들 사이에 관계 즉 국제사회 속에서 파악되고 국제의 변화와 더불어 그 존재양식이 변화한다. 외부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집합적 정체성의 지속성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정체성을 공고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정호영, 2001: 78-79). 이 과정에서 정치적 변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 승인 단계에서 권력적 우위를 점하는 집합체- 이를 테면,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 - 는 상대적으로 쉽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집합체들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보기관이 전쟁이나 비밀 정보활동을 통해 대상 국가의 정치 엘리트들을 교체하거나 주변 국가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역학관계를 변화시켜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였다면 정체성을 재구성 내지 획득한 정체성 교섭 및 승인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이스라엘의 민족 국가건설과 정보활동

1. 정치적 시오니즘과 정보기관 태동

이스라엘의 초기 정보조직은 생존과 독립의 필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생성되었다. 1897년 8월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시온주의자대회가 개최되고 1901년 비엔나에 시오니즘 운동본부가 개설된 후 해외 유대인들의 정보조직망이 발달하였다(권상수, 1986: 40). 시오니즘에 기초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의 이주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태동에 또 하나의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운동의 전개로 유대인 공동체가 조직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아랍인들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유대인의 증가는 팔레스타인 아랍 원주민들과 대립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아랍인들은 새로운 침입자들에 대하여 테러와 습격을 감행했다. 이 결과 유대인들 역시 1909년부터는 집단농장인 하쇼메(Hashomet: 경비부대)란 자위기구를 발족하였으며 이때부터 체계적인 정보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희상, 1978: 10).²⁾ 아랍인 약탈자를 감시하고 무기를 조달하는 역할을 했던 하쇼메는 침입자를 기다려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약탈자를 선제공격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³⁾ 이후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정보공동체의 발달은 193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Carmel, 1999: 16-18). 영국의 以夷制夷 통치방식에 대항하여 유대인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과 대아랍 투쟁을 위하여 하가나(Hagana: Irgun Haganah)라는 지하군사조직을 창설하고 그 휘하에 쉐이(SHAI: Sherut Yedoit)라는 정보조직을 가지고 있었다.⁴⁾ 이 기관들은 세계 시온주의자 연맹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가면서 영국, 아랍, 나찌에 대한 정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의 갈등의 해결을 위해

2) 1909년은 이스라엘 공동체인 키부츠가 시오니즘 운동과 병행하여 유대인 기금으로 최초로 조직된 해이다.

3) 이와 같은 선제공격 형태의 정보활동 방식은 1-3차 중동전에서 그대로 나타났으며 최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아랍국가들의 테러 근거지를 습격하여 초토화시키는 방식에서 초기 정보활동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

4) 하가나는 Hashomer(지키는 사람)에서 비롯되었다. Hashomer는 의용심으로 자기자신들과 유대인 부락과 농장을 방어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유대인이 아랍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게되자 Hashomer의 개념은 Haganah(방위)의미로 전환된 것이다. 쉐이 요원들은 자기들이 방문했던 아랍인 부락의 실정을 제보하였다. 그 내용은 촌장과 회교층의 동태, 가족 사항, 신축 가옥현황에 관한 것까지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첩보들은 토지매입이나 두 공동체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키부츠 주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정보활동을 하게 되었다.

영국정부가 발표한 “맥도날드 백서”에 따라 유대인 이민자의 숫자가 제한당하자, 1937년에 하거나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여 모사드 레알리아 베스(Mossad le Aliyah Bet)를 만들어 비합법적인 이민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사드는 이스라엘 국가건설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영국의 조사활동 결과를 이스라엘에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팔레스타인 지역내 아랍인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심지어 유대인 과격단체인 이루군과 레히의 활동까지 정확히 수집하였다. 모사드 본부는 처음에 제네바에 설치되었으며 1938년에는 나찌 독일국가의 중심지역에 이민희망자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귀환을 가능토록 하였다.

2. 영국과 UN 대상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활동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팔레스타인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시 영국의 전략은 아랍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수에즈 운하와 항구가 있는 중동지역은 전략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이곳에서 생산되는 석유로 인해 그 가치는 더욱 컸다. 따라서 영국은 1939년 유대인들의 이주를 대폭 제한하는 “맥도날드 백서”(McDonald White Paper)를 채택하여 아랍인의 지지를 얻으려 하였다. 시온주의 입장에서 볼 때 팔레스타인인으로의 이민 규제는 영국의 약속 위반사항이며 아랍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하거나는 영국에서 새로 등장한 노동당 정부의 반시온주의 정책에 주목하면서 영국정부와 투쟁을 선언하였다.

이르군도 베긴(M. Begin)의 지휘아래 폴란드에서 요원들을 충원하면서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Avineri, 1981: 164).⁵⁾ 1938년 10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 Betar회의에서 25세의 젊은 베긴은 유대인 지도부의 대영 타협 노선에 대해 비판하였다. 한편, 영국은 1944년 2월 나찌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의 대량학살이 임박했음에도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금지하는 White Paper제약안을 지속 강행하

5) 당시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인들의 절박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라는 사실은 매우 현명한 말이며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다. 이웃이 아무리 선하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그들을 믿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정의는 주먹과 고집이 만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존재한다. 아무도 믿지 말라. 몽둥이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이것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전쟁에 있어서 유일한 생존 방식이다.”

러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르군의 새로운 사령관인 베긴은 나찌와의 전쟁에서 영국군의 편에서 전쟁을 수행토록 규정한 협정을 파기할 것을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호소하였다. 1년 후 영국이 화이트 페이퍼제약안을 강행하자 수천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난민 수용소에서 갇히게 되었으며 이에 벵구리온은 베긴을 하가나에 합류토록 하여 대 영국 공동전선을 형성하였다. 1945년 10월 31일 통합된 히브리 저항단체인 하이브리트(Tnuat Hamerai Haivrit)는 영국의 주요 시설에 대한 합동공격을 실시하였다. 이에 영국 경찰선이 하가나 엘리트 타격부대인 팔마크에 의해 하이파와 자파에서 침몰되었다. 또한 하가나 군인들에 의해 철로 시설물들이 폭파되었고, 극단적인 Lohamei Herut(이스라엘 분파)로부터 충원된 특수요원들은 하이파에 있는 정유 저장시설에 대해 사보타지를 시도하였다. 베긴의 이르군은 리다 기차역사에 기관차를 폭파하는 등 수많은 테러를 지속적으로 자행하였다. 1946년 6월 29일 팔레스타인내에서 영국 당국은 벵구리온 군대에 대해 보복하였으며 기습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시오니스트 사무실과 25개 유대인 정착촌을 급습하였고 수백명의 유대인들을 보호소에 유치시켰으며 유대인 부락에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였다. 영국은 팔작전명 ‘검은 토요일’(Black Saturday)을 감행한 결과, 2,700여명의 유대인들을 체포하였다.

1946년 6월 이르군이 킹 데이빗 호텔에 대한 테러 공격은 이같은 영국당국의 조치에 대한 반응이었다. 1940년에, 영국군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업무를 지휘하기 위한 본부로 이 호텔을 인수하고 통신장비를 설치하였다. 말하자면, 킹 데이비드 호텔은 미국의 펜타곤과 의회와 동일한 성격으로 영국의 위임 통치의 의미를 지니는 건물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 호텔을 파괴하고 침투하는 일은 게릴라 전쟁 방식이었다. 이같은 사실들은 이스라엘의 영국에 대한 반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활동에 대한 의지가 실로 대단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보기관 간부들은 하가나 킹 데이비드 호텔에 대한 공격을 승인하였으나 - 후에 그 명령을 취소할 부인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폭파작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르군은 폭파, 테러 등 정보활동을 전개해나갔으며 빈 리전스 레스토랑 아래에 있는 호텔 지하에 TNT를 설치하였다. 이 폭발로 인해 91명의 사망자와 4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베긴은 테러리스트로 비난을 받았다. 이르군-하가

6) 이 정보기관은 1940년에 영국군과 정전협정에 참여한 4,000여명 구성원들과는 달리, 참여를 거부했던 400-500여명의 이르군 특수요원으로 구성되었다.

나 동맹체는 벤-구리온이 영국에 대한 폭력행위의 중단을 명령함에 따라 갑작스런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베긴은 테러행위의 금지 명령을 무시하였다. 1947년 3월 이르군은 예루살렘 관리 클럽에 대한 정면공격을 시도하는가 하면 자동소총을 은닉한 채 빌딩에 여행용 가방 폭탄을 투척하여 17명의 영국군인들과 3명의 민간인 전화교환수를 살해하였다. 1947년 6월에는 3명의 이르군 요원들이 영국 당국에 의해 교수형에 처하자 이 기관의 작전대장은 2명의 영국군인들을 같은 방식으로 사형에 처하였다. 그해 여름 팔레스타인 주둔 영국 사령관이었던 바커(E. Barker)를 암살하기 위해 2명의 이르군 요원들이 영국으로 파견되었지만, 스코틀랜드의 형사들은 그 계획이 실현되기 전에 영국을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베긴의 영도하의 이르군의 영국과 아랍국가에 대한 테러, 정보활동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열띤 찬반의 공방 속에서 지속되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영국은 소련의 중동지역으로의 진출을 우려했으며 중동을 서방 안전에 필수적인 지역으로 보았다. 이스라엘의 무장 투쟁과 아랍민족사이에 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한 영국은 결국 1947년 4월 유엔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상정하였다. 유엔총회 회의 결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 분할해서 이람국가와 유대국가를 각각 수립하려는 주장이 관철되었다. 동시에 총회는 1948년 8월 까지 위임통치를 종식시키겠다는 영국정부의 결정을 승인하였다. 같은 해 5월 14일 영국 정부는 이 지역에서 주둔군을 철수시키며 신탁통치를 완전히 종식시켰다. 같은 날 시온주의자들은 민족평의회(National Council)모임에서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국가 수립선포가 있는지 수시간 후에 미국이 이를 승인했고 소련도 뒤따랐다. 드디어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국가주권 즉 대내적 자치권과 대외적 자율성을 향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행위자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중동지역의 아랍국가들로부터는 그 국가성이 부인되었으므로 4차례에 걸친 전쟁과 평화협상이라는 길고도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국가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3. 모사드의 이스라엘-이집트 정상회담 추진

1951년 모사드가 창설되면서 처음으로 수장이 된 실로아(R. Shiloah)는 아랍국가들을 적으로 보는 동시에 잠재적인 동맹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모사드는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국왕들과 비밀접촉을 유지하면서 정보활동을 전개하였다. 1952

년에 접어들면서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로서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세변화가 발생하였다. 그해 7월 이집트에서는 나깅(M. Naguib)을 중심으로 한 젊은 군인들이 사회주의 기치를 내건 무혈혁명을 통해 파로욱(Farouque) 국왕을 축출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도 벤구리온이 은퇴하고 샤렛(M. Sharett)이 수상으로 선출되면서 이집트와 중동평화의 가능성이 어렵듯이 엿보이기 시작하였다. 1954년 권력에 오른 나세르가 이집트를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그를 평화협상 파트너로 인식하였다. 이에 실로아는 나세르와 비밀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반 여건을 십분 이용하였는데 양국 엘리트 사이에는 조만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수 중동전문가들이 평가하듯이 1954년 정상회담의 시도야말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협상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 이집트와 첫번째 대화채널은 와싱턴에서 실로아와 CIA요원 그리고 이집트 파견관 루즈벨트(K. Roosevelt)사이에서 이루어졌다.⁷⁾ 당시 미국은 이스라엘을 중동지역에서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서방권의 주요 요새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아래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평화협상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협상도 카이로 주재 CIA요원과 루즈벨트의 중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53년 10월 주미 이스라엘 대사로 자리를 옮긴 알로아는 미국의 CIA요원들과 접촉하면서 모사드 국장 하렐(I. Haral)과 경쟁관계에 있었다. 수상 샤렛은 미국을 통해 양국간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일상적인 안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직접적인 비밀 핫라인을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다음 두 번째 제의에는 CIA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제의하였다. 이에 이집트 지도부가 수용함에 따라 이스라엘은 디아본(Z. Divon)과 아브니(D. Avni)를 협상대표로 이집트 나세르의 측근인 오카샤(S. Okasha)와 비밀접촉을 개시하였다. 이들 이외에도 양국 최고통치권자들의 최측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상라인들이 물밑 접촉을 전개하고 있었다.

1954년 10월 양국은 파리에서 일련의 비밀회동을 개최하고 4개항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양국은 첫째,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며, 둘째, 갈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개설하며, 셋째, 파리에서

7) 루즈벨트는 미국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의 손자로서 1950년대 CIA중동 파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정치인들과 친분과 미국의 국력을 이용하여 이들 국가들의 국내외 정치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부를 통한 직접 대화를 위한 통로를 유지하며 마지막으로, 이집트는 이스라엘로 물자를 수송하는 외국깃발을 단 선박의 수에즈 운하 통과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나세르(G. Nasser)는 양국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 특사를 접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는 정보채널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다. 1955년 1월 카이로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된 이후 샤렛은 모사드를 통해 특사 야딘(Y. Yadin)에 대해 최종 지침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집트 재판부가 이스라엘 요원들을 간첩혐의로 사형에 처하자 당황한 샤렛은 CIA를 통해 나세르에게 처형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하였다.⁸⁾ 다음날 샤렛은 모사드 국장 하렐과 협의하여 특사 야딘의 카이로 방문을 연기토록 지시하였다. 이 사건의 여파로 강경파 벤구리온이 국방장관으로 취임하자 이집트와 비밀협상과 유화정책을 중시부를 찍게 되었다. 계획대로 1955년 1월 말 경 나세르와 야딘 사이에 회담이 성사되었더라면 중동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스라엘 정보요원의 처형으로 인해 비록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못했으나 중동지역에서 평화구조 창출을 위한 구상과 이행과정에서 모사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보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갈등과 대립의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역할 인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이스라엘과 같이 사방 적으로 둘러싸인 나머지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비밀과 신속이 보장되는 정보기관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정보기관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반부처가 가지는 정책 수립, 이행 기능을 담당하면서 정책의 관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IV. 국가성 획득과 정체성의 변화

1. 중동전쟁과 정보활동

3차 중동전쟁은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이 국가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

8)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의 우수한 정보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이들 요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보상제도에 있다. 정보요원을 구명하기 위해 각국 정상들로 하여금 이집트에 압력을 가하는 가하면 중동전쟁에서 체포된 정보요원 1명을 구출하기 위해 5,000명의 이집트 포로를 맞교환하는 태도는 이들 에이전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스라엘 정보활동의 구조적 특징과 함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정보요원들을 얼마나 중요시하는 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워 공군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되었다.⁹⁾ 이스라엘이 선제기습 공격을 감행한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이스라엘의 외교적 해결 노력의 실패이다. 이집트의 티란 해협의 봉쇄는 이스라엘에게는 중대한 안보위협 요인이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를 해소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들 국가를 설득시키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외교적 노력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둘째, 정보기관 요원들을 비롯한 강경파들의 개진 압력이 기습을 감행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군 정보기관 Aman 부장 야리브(Yariv)등 간부들은 외교적인 노력의 무의미성을 주장하며 조기 선제공격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군사력 면에서도 이스라엘은 아랍측에 비해 훨씬 열세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기습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개시할 경우, UN안보이사회의 휴전결의와 같은 국제적 압력이나 소련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그들의 전쟁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72시간의 여유 밖에 없을 것으로 이스라엘 정보공동체는 판단하였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유엔의 휴전결의 이전에 전쟁의 승부를 결판내야 유리한 조건으로 휴전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으며 정확한 군사정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생존과 이익에 기여하게 되었다(권상수, 1986: 84).

셋째, 장기간 전시체제 유지와 군사력 동원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정보공동체내에서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인근 아랍국가들에 비해 국방인력이나 전체 총 인구가 부족한 이스라엘은 전쟁 발발시 18세-55세에 해당하는 대부분 남자들은 예비군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에 전시 장기화시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이집트와 요르단간의 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인해 군사적으로 아랍에 의해 포위되고 이스라엘의 전략적 약점이 아랍국가들에 노출된다는 것이었다(김승기, 1986: 27). 이스라엘 국토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동서

9) 이스라엘은 아랍국가들과 4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루면서 대외적으로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3차 중동전쟁(일명 6일 전쟁)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제 1·2차 중동전쟁에서도 정보기관의 활동은 두각을 보였으나 제3차 중동전쟁에서부터 비로소 이스라엘의 군사정보가 아랍측 군사정보와 본격적으로 경쟁하면서 전쟁의 승패요인으로 정보능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3차 전쟁직후 이스라엘의 영토가 4배로 확장되면서 아랍국가들의 분열과 좌절감, 이로 인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변화를 초래되었다. 제4차 중동전쟁은 이집트의 선제기습 방식은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모방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

로는 가장 짧은 거리는 14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의 공중공격으로부터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적의 선제공격시에는 이스라엘의 안보는 치명적이며 이에 대한 조기경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략적 취약성에 직면한 이스라엘은 아랍국가 전체가 이스라엘의 붕괴를 의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습전쟁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같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아랍측에게 선제공격의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초기에 군사력의 균형을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변화시켜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군 정보부는 아랍 공군력에 대한 정보수집에 역점을 두면서 초고공 정찰비행과 정보활동을 통해 아랍의 공군기지의 위치 및 규모는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여기에 18여개월간에 걸쳐 공작원들을 침투시켜 모든 기지에 대한 직접 정찰을 실시하여 전투기의 정비상황에서부터 조종사의 이름, 결혼 여부, 가족사항, 기지 사령관의 특징에 이르기 까지 자세히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상군에 있어서도 아랍군의 부대배치와 방어시설 - 요새구조, 무기배치, 지뢰지대 등 - 그리고 지형분석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아랍측의 통신망과 전투암호를 순식간에 해독하는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기습 계획수립에 필요한 적의 의도, 능력, 취약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아랍국가들이 보유한 최신 전투기는 MIG-21이었는데 모사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기존 조종사의 인물정보를 바탕으로 회유공작을 실시하였다. 약 8개월에 걸친 공작을 통해 1966년 8월 이라크의 무닐 레드파라는 조종사가 MIG 21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공군기지로 귀순하였다. 이로써 획득한 MIG21에 관한 정보는 이스라엘 공군에게는 전투력 증강에 도움을 주었으며 6일 전쟁 승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¹⁰⁾

또한 이스라엘 공군과 정보당국은 이집트 공군의 일상적인 규칙을 오랫동안 특히

10) 이스라엘 공군은 자신들의 미라쥬 전투기보다 저공에서 기동성이 앞선 MIG-21을 고공으로 유인 격파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MIG-21의 가장 큰 기술적 결함은 점화시스템이 연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이 시스템이 다른 점화장치 없이도 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체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점화용 탱크에 총탄을 맞을 경우 공중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이스라엘의 공군은 6일 전쟁기간 동안 총 64회에 걸친 공중전에서 MIG-21을 54대나 격추시킨 반면, 미라쥬기는 단한대도 격추 되지 않았다. 이는 이집트 공군 조종사들과 전투기의 장단점과 특징을 세밀하게 파악한 정보활동의 결과였다.

지난 수주일간에 걸쳐 면밀히 관찰한 결과 이집트 공군은 관습적으로 동이 트는 새벽에 한 시간거리의 초계비행을 하였으며 이후 조종사들은 08시부터 09시 까지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받은 이집트는 1차 공중공격으로 총 419대의 항공기중 197대를 잃었으며 3차에 걸친 공격으로 총 304대를 상실했다. 이상과 같은 이스라엘의 작전계획은 실전에서 거의 차질 없이 그대로 수행되었으며 그들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정보능력은 곧바로 국가의 총체적인 전쟁수행 능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적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의 사활적인 이익을 담보하거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2. 모사드의 정보판단과 정상회담 개최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수집한 아랍 국가들의 위협과 관련된 정보들은 CIA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제공되었다. 모사드는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에 대한 암살 정보를 사다트 측근에 전달하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77년 9월 이스라엘은 모로코 당국으로부터 사다트 대통령이 비밀리에 베긴 수상을 만날 용의가 있음을 전달 받았다. 이스라엘은 신속히 동의했지만 외교부 장관과 부총리의 예비접촉을 주장하면서 회동 시기를 조정하고 있었다. 같은 해 10월 7일 이스라엘의 구상에 따라 이스라엘 외교부장관 다얀(M. Dayan)과 이집트 카운터 파트너인 투아미(H. Tuhmi) 사이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자 회담추진 주체는 외교부에서 정보기관으로 옮겨 가고 있었다. 따라서 모사드 책임자 호피(Y. Hofi)장군은 모로코 주요 인사들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아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최고 수준의 회담을 주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Carmel, 1999: 87). 이 회담은 상대방의 의중을 탐색하는 예비회담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재회동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이외는 이렇다 할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회담의 결과 사다트의 이스라엘 방문 결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내부에서는 사다트의 이스라엘 방문을 앞두고 그의 의도에 대해 의도적인 기만으로 보는 시각과 양국 관계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는 관점이 팽팽하게 대립되었다. 베긴 총리

는 카멜(H. Carmel)부장에게 사다트의 방문은 기만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모사드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종용하였다.

베긴 총리는 사다트 방문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나 대책수립을 지시하려는 계획을 처음에는 갖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카멜 부장은 이집트의 군사적 기만전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집트와 세계국가들이 정상회담을 방해한다는 인상을 주는 조치들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군 총사령관과 모사드 호피 부장은 카멜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야딘 부총리는 이집트의 화해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표출하면서 예비군 두개 사단을 소집하여 시나이에 배치토록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들 정보기관장들은 총리와 부총리를 설득하여 예비군 동원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요지부동이었으며 총리의 논리는 단순했다. 모사드 부장과 군 정보부장의 강력한 요청으로 와이즈만(E. Weizman)부총리는 대통령을 설득하여 예비군 동원 계획을 최소토록 하였다. 당시 이스라엘 정보공동체는 사다트의 방문을 위협과 긴장 속에서 맞이하는 것보다는 화해와 협력적인 분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호전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또 다른 이유로 정보기관은 사다트가 아랍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에 호응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이스라엘도 정치, 경제, 심리적인 면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다트의 방문 배경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내지 미국과의 공조체제 약화 등의 우려도 있었지만 4차례에 걸친 전쟁을 통해 아랍국가들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붕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욘키푸르 전쟁에서 기만으로 인한 초기 패배의 악몽에도 불구하고 사다트의 방문은 중동평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주장은 하산 국왕이 사다트의 방문 의사를 중재했을 때 이스라엘이 즉각 수락하고 정보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데서 잘 드러난다. 1977년 11월 20일 이스라엘의 크네셋을 방문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국가로서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다.

3. 이스라엘의 ‘정복자’ 정체성 형성

홀로코스트와 디아스포라를 통해 형성된 이스라엘의 이미지는 언제나 역사의 희생자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민의 대상이었다. 이와 같은 이미지를 부정하면서

적극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노력도 시도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박해와 대량 학살의 희생자로서 그들 스스로를 이해하였다. 다시 말해, 1967년 이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 신뢰와 확신을 갖지 못했다(E. Karsh, 2002: 16). 그러나 6월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같은 집합적 자의식을 완전히 변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6월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을 휩쓴 자기도취 현상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인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가건설이후 이주해온 사람들의 전투능력에 대한 의심이 약화되어갔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웨스트 뱅크의 정복은 1967년 이전 협소한 경계로 인해 생성된 폐소 공포증 (claustrophobia)을 제거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아랍영토에 의해 3면이 포위되고 19년간 고립된 예루살렘과 관련해 볼 때, 그 의미는 더욱 증대되었다. 예루살렘의 재탈환은 전세계 유대인과 이스라엘인들에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적인 흥분을 가져다주었다. 마지막으로 두 요소를 받쳐주는 경제적 측면에서 전후 경제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즉, 획득한 가자와 서안지구 아랍인들로부터 다수의 저렴한 노동력은 노동집약적인 농업과 산업의 확대를 가능케 했다. 그 결과 총체적 번영과 국가의 생존능력에서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낙관적인 풍조가 이스라엘 사회에 팽배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은 6일 전쟁직후 첫 독립일 퍼레이드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전 국민이 환호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축하행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쟁이전 아랍제국은 이스라엘의 존재와 주권 그리고 독립을 완강히 부인해왔으며 정치·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을 거부해왔다. 따라서 아랍권은 협상테이블에서 마주 앉기조차 거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4차례에 걸친 전쟁을 거치면서 특히 1973년 10월전쟁 이래 강경파 아랍국가들도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묵인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73년까지의 소위 아랍인들이 말하는 실지회복이란 이스라엘의 원래 영토만을 의미했으나 그 이후로는 1967년 6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점유한 시나이 반도와 골란고원,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을 실지회복의 대상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이스라엘의 실체를 인정하는 중요한 태도의 변화이며 아랍측 자세가 보다 온건하고 현실적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77년 초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국가 승인으로까지 아랍측의 태도가 변해 갔다. 즉 이집트가 아랍권에서는 처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며 직접 현상을 통한 평화협상체결을 촉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국가의 정체성은 내부 요인과 외부 환경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끊임 없이 재구성된다.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존재에 대한 아랍국가들의 승인 분위기 확대는 유대국가의 새로운 자기이해 방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협상의지를 표명한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여기에는 군사적 방법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수십년 동안 지속된 갈등과 냉전의 종식, 아랍주의의 쇠퇴와 국가주의의 등장 등이 포함된다. 범아랍주의라는 명분 아래 전개되었던 이스라엘과의 갈등과 전쟁에 대해 아랍국가들은 전쟁이후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아랍국가들의 이같은 태도변화에는 이스라엘 정보활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직접협상을 시도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Barnett, 1998). 전쟁에서의 패배로 아랍제국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은 아랍연합에서부터 개별 국가에 이르기까지 또다시 그들의 내외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실, 아랍의 대이스라엘 전쟁의 근본 목적은 이스라엘의 제거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기독교 국가인 이스라엘의 소멸이야말로 아랍국가들이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가장 큰 대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유대국가는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어떻게 제거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나세르는 오직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 이스라엘을 파멸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면전쟁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Harkabi, 1977: 4). 이스라엘의 소멸을 위해 아랍국가들은 단결해야했으며 이러한 주장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나타났다. 이들의 고집은 전쟁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실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1·2차 중동전쟁에 이어 제3차 전쟁에서 패배는 아랍민족의 정체성의 분열을 가져왔다. 사다트는 이집트의 국가이익을 우위에 두는 실리외교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 사다트가 이집트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과 범아랍주의사이에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시도해온 이집트가 오히려 희생되었다는 판단이 작용하였다(홍순남, 1997: 63).

여러 차례 전쟁으로 인한 과중한 군비지출로 이집트 경제가 악화되고 또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훼손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었다. 이스라엘과 분쟁은

이제 이스라엘의 안보와 정체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국내문제가 된 것이다. 사다트는 이집트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이집트 국민의 실지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1975년 수에즈 운하 재개통과 경제개방 정책을 추구하며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에 임하게 되었다.

IV. 결 론

이스라엘에서 정보활동은 국가의 태동과 발전, 그리고 흥망성쇠와 그 궤를 같이해 왔다. 주변 아랍국가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다할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보활동은 국가 최고 생존전략 차원에서 이행되어 왔다. 1970년대 이스라엘 라디오 방송에서 “만약 위기 상황에서 누가와 함께 갈 것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참가자들은 “정보요원들과 같이 가겠다”고 답변한 대목에서 이스라엘에서 정보기관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는 일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활동이 건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19세기말 이후 시기부터 분석하였다. 역사의 희생자로서 추방과 박해, 개종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유대민족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민족국가 건설을 계획하였다.

성서에서 제시된 팔레스타인으로 복귀는 필연적으로 아랍인들과의 충돌을 야기했으며 이에 유대인들은 집단적 자위기구인 정보기관들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건설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공식적인 정보기관이 국가건설을 위해 태동된 셈이다. 2차 세계 대전 전후 이스라엘은 정보활동을 통해 연합국측과 협력하면서 미국과의 정보협력 관계를 구축을 통해 국가건설에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 받았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미국은 이스라엘을 공식국가로 승인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전쟁중에 태동된 이스라엘은 아랍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 태어난 국가’ 또는 ‘임시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부인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주변국가들로부터 정체성을 획득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였다. 국가안보는 ‘우리가 누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난후에야 비로소 필요한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정보엘리트들은 자원의 열세를 극복하고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

로서 공세적인 정보활동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이스라엘의 독립투쟁에서부터 1948년 독립이후 UN과 서구 열강들로부터 국가승인을 거쳐 아랍국가들과 4차례의 전쟁을 통해 일관되게 시도되었다. 신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에서 유대인들의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어야한다는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강박관념은 정보활동의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여기에는 오직 자신의 힘만이 국가의 정체성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이 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역사의 희생자 또는 승리자로서의 정체성은 당연히 위협에 대한 정의와 평가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스라엘 정보엘리트들은 시기와 정치세력의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유대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해야한다는 데는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서의 정보활동은 대외정책의 합리성을 보장하거나 결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수단을 넘어 건국과 독립, 그리고 적대관계에 있었던 아랍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이스라엘의 국가성을 획득하는 기제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흔히 있을 법한 정치에 시너 역할을 하거나 자국민을 테러했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들 정보요원들은 유대국가의 정체성 형성과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왔던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 정보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정보활동을 모범으로 삼고 칭송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권상수(1986). *중동전쟁에서 정보의 역할*,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80-84
- 김승기(1986). *중동전쟁과 정보*,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27-30
- 김희상(1978). 「*중동전쟁*」, 서울 :일신사
- 유정렬(1991). 「*중동 : 정치와 그 현실*」, 서울 : 어문각.
- 정호영(2001). *민족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진영(1996). *세계화와 주권국가의 변모*, 한배호편, 「세계화와 민주주의」, 세종연구소
- 홍순남(1997). 「*중동정치질서의 이해*」, 서울 : 한국외국어대출판부

2. 국외 문헌

- Avineri, S. (1981). *The Making of Modern Zionism: Intellectual Origins of the Jewish State*, New York : Basic Books.
- Barnett, M., & Adler, E. (1998). *Security Communit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cher, M. (1972). *The Foreign Policy System of Israel: Setting, Image, Proc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Bregman, A. (2000). *Israel's Wars: A History Since 1947*, New York: Routledge.
- Castells, M. (1997). *The Power of Identity*, New York: Blackwell Publishers.
- Carmel, H. (1999). *Intelligence for Peace : The Role of Intelligence in Times of Peace*, London: FRANK CASS PUBLISHERS.
- Buzan, B. (1999).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London: Macmillan.
- Hall, R. (1999). *National Collective Identit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Heller, M. (2000). *Continuity and Change in Israeli Security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New Y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rkabi, Y. (1997). *Arab Strategies & Israel's Response*, New York : Free Press.
- Jenkins, R. (1996). *Social Identity*, New York: Routledge.
- Karsh, E. (2002). *Israel: The First Hundred Years*, Oregon: Frank Cass & Co. Ltd.

- Lewis, B. (1998). *The Multiple Identity of the Middle East*, New York: Schocken Books.
- Morris, B. (2001). *Righteous Victims: A History of the Zionist - Arab Conflict, 1881-2001*, New York: Vintage Books.
- Posner, S. (1987). *Israel: Undercover*,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 Telbami, S., & Barnett, M. (2002), *Identity and Foreign Policy in the Middle East*, New York: Cornell University.
- Wendt, A.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Role of Intelligence Activity in the Building of Israel and its Identity

Seok, Jae-Wa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Israeli intelligence activity which had contributed to the building of Israel and of its national identity. In the late 19th, the Jews scattered around the world had shared the image of victims shaped in the history of the persecution. In this process, intelligence activity was a staple factor which established the state of Israel; political and religious community.

Fighting against Arabs, Israel's intelligence agents had played key role in migrating Jews to Palestine and building their own state. In other words, Intelligence activity was the instrument of implementing political Zionism, Jewish nationalism.

Even after independence in 1948, despite the opposition of Arab, Israeli intelligence agencies had persuaded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o recognize Israel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rab countries, nevertheless, had regarded Israel as 'a state to be disappeared', and its national identity was totally denied. However, Israel officially gained recognition for statehood through Arab-Israeli war and summit talks with Egypt. Israel finally restored the 'Promised Land' that is recorded in the Bible and established its identity of a winner. In conclusion, Israeli intelligence agency played a decisive role in founding the nation and even forming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Key words : Identity, Categorization, Zionism, Middle East War, Summit Talks